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 pp.81~10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12

수도권 지역 개신교인, 불교인, 천주교인의 종교적 내재성(immanence) 비교 - 종교정향과 종교의식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金 東 基 · 高 炳 哲
(강남대학교 · 한신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개신교, 불교, 천주교 신자들 간의 내재성 차이를 검증하여 신앙인들을 이해하고, 종교 간의 의식차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째, 변인들의 주요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세 종교 전체에서 보면, 신앙중요도는 종교적 내재성의 수용성과 현재성에서 유의미하게 상관성이 있고, 경계성에서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종교적 내재성 정도에 따른 종교 간 비교를 위한 t검증 결과에서는 개신교가 경계성과 수용성에서 다른 종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셋째, 종교적 내재성과 종교정향의 정도가 종교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세 종교 전체에서, 내재성 세 척도(수용성, 경계성, 현재성)의 거의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종교별로는 유의미한 변량분석 결과가 천주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개신교, 불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재성 하위 척도별로는 수용성, 현재성, 경계성의 순이다. 종교정향 하위 척도별로는 추구적 정향, 외적 정향, 내적 정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종교, 종교적 내재성 척도, 종교정향 척도, 개신교·불교·천주교 비교

* 본 연구는 2004년도 강남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 신앙의 내재성에 따라 종교적 정향과 종교의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 연구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 사회에서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신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개신교인, 불교인, 천주교인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종교인들 간의 내재성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종교가 서로 다른 신앙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종교 간의 의식 차이를 극복하는데 요구되는 주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현재까지 내재성 개념을 이용한 종교심리학적 선행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인인 내재성(immanence) 개념과 종교정향(religious orientation)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부리스와 타플레이(C. Burris & W. Tarpley)는 인간의 종교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종교적 내재성 척도(immanence scales)를 개발하였다.¹⁾ 이들에 의해 내재성 척도가 개발된 이후, 학계에는 내재성 척도의 구성요소와 타당성을 증명하는 자료들, 그리고 각종 편견과 사회적인 돌출 행동에 내재성 정향이 함축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부리스와 타플레이는 내재성 개념이 엘포트(G. Allport)²⁾가 초기에 제안한 종교정향의 한 형태이며, 특히 제임스(W. James)의 낙관적 성품의 종교(healthy-minded religion) 개념, 그리고 매슬로우(A. Maslow)의 절정경험(peak-experience)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시인하고 있다.³⁾ 따라서 내재성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낙관적 성품의 종교 개념과 절정경험 개념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제임스는 의식 이면에 잠재의식(subliminal consciousness)이 존재하며, 종교 경험을 잠재의식 속에서 보다 넓은 자아(cosmic self)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라고 보았다.⁴⁾ 그는 잠재의식을 지닌 인간을 삶을 바라보는 방식들을 기준으로 “낙관적 성품”(healthy-minded)의 인격을 지닌 사람과 “고뇌하는 영혼”(sick soul)의 인격을 지닌 사람을 구분한다. 낙관적 성품의 사람은 악을 의도적으로 극소화시키고, 모든 사물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즉각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⁵⁾ 또한 낙관적 성품의 사람은 시공간상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

1) Burris, C. T., & Tarpley, W. R., Religion as being: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immanence scal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 1998.

2) Allport, G. W., The religious context of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 1966.

3) Burris, C. T., & Tarpley, W. R., *op. cit.*, p.55.

4) James, W., 김재영 옮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서울: 한길사, 2000. 43쪽, 235쪽.

재”(here-and-now)를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반면에, 낙관적 성품과 대조되는 고뇌하는 영혼의 인격을 지닌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라 내세를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⁶⁾ 고뇌하는 영혼의 인격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 낙관적 성품의 방식은 맹목적이며 천박해보이고, 낙관적 성품의 입장에서 고뇌하는 영혼의 성품은 소심하고 병적으로 보이지만,⁷⁾ 그 결과는 실천적 삶 속에서 나오는 생활의 열매를 통해 평가된다.⁸⁾

매슬로우는 사람들이 자아를 초월해서 이상이나 고귀한 가치를 향해 성장하고 매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매슬로우는 초기에 잠재력의 실현 과정으로서 욕구 위계(hierarchy of needs)의 순서를 정하였다.⁹⁾ 욕구 위계 순서는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기존중 욕구(esteem needs)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자신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만족감을 얻는 욕구로서, 최상의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ing needs)와 하위 욕구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한다.¹⁰⁾ 매슬로우는 자아실현 욕구를 위계의 최상에 놓은 것은 “개인이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불만족과 불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맥락을 염두에 둔 것이다.¹¹⁾ 이러한 위계의 설정은 매슬로우는 인간의 동기를 결핍을 채우려는 충족의 동기와 내면적 자기의 모습을 실현시키려는 성장의 동기로 구분한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¹²⁾

후기에 들어서, 매슬로우는 자아실현 욕구를 넘는, 자아의 위에서 자아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초월욕구(meta-need)”를 상정하였다.¹³⁾ 그리고 매슬로우는 자기중심적 욕구를 결핍에 기인한 낮은 수준의 “결핍 욕구”(deficiency needs or D-needs)로 간주하면서, 초월욕구를 “존재욕구”(being needs or B-needs)라고 명명하였다. 이 때, 초월이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추구하는 본능이다. 초월욕구는 보통 세계의 주요 중

5) 위의 책, 152쪽, 197쪽.

6) 위의 책, 156쪽.

7) 위의 책, 230쪽.

8) 김선희, 〈윌리엄 제임스의 사상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 《미국학논집》, 32-1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00(여름). 48쪽.

9) Maslow, A.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1970.

10) Meadow, M. J. & Kahoe, R. D., 최준식 옮김, 《종교심리학》, 서울: 민족사, 1993. 67쪽.

11) Maslow, A. H., *Religions, values, and peak experiences.*, Columbus, OH: Ohio State University, 1964. p.91.

12) Maslow, A. H., *op. cit.*, 1970. pp.45-8.

13) Maslow, A. H.,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1971. p.275.

교들이 내세우는 자아 초월적 가치, 즉 “존재가치”(values of being or B-values)인 진리, 아름다움, 선함, 성스러움, 사랑, 자비, 정의, 포기, 책임감, 통일성, 질서, 완벽성, 완전성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수단(means)보다 존재의 목적(ends)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른바 존재 심리학(being-psychology)의 대상이다. 절정경험이란 바로 존재의 목적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는 비종교인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다.¹⁴⁾ 본질적으로 존재의 목적을 경험하는 절정경험은 마치 위대한 대상 앞에 선 것처럼 경이와 경외, 존경과 겸양, 복종, 행복 등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며, 동시에 변화하는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개인화와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삶을 보람된 것으로 만든다.¹⁵⁾ 따라서 절정경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자기의 모든 능력을 최고로 사용하는 경지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로저스(C. Rogers)의 “충분히 기능하는”(fully functioning) 사람들에 대한 개념과 유사하다.

부리스와 타플레이는 프롬¹⁶⁾과 펙(M. Peck)¹⁷⁾ 등의 영향도 언급하지만, 특히 제임스의 낙관적 성품의 종교와 매슬로우의 절정경험 개념에 영향을 받아서 경계 초월(boundary transcendence), 자각(awareness)과 수용(acceptance), 현재에 대한 강조(focus on the present)라는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는 상호 관련된 내재성 개념을 설정하였다.¹⁸⁾ 이 내재성의 구성요소들은 부리스와 타플레이의 종교 이해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들은 증오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종교 특징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종교 근본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선과 악이라는 경계선을 분명히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종교가 잠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나 경험들을 판단 없이 자각하여 수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종교가 신자들에게 현재를 무시하고 과거와 미래에 골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부리스와 타플레이는 종교 정향으로서 (1)경계를 유지하기보다 초월하는 동기, (2)잠재적 위협에 대한 조작과 통제보다 자각과 수용, 그리고 (3)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의 경험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내재성이라고 명명하였다.¹⁹⁾

14) Maslow, A. 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Y.: D. VanNostrand, 1968. pp.73-9; 김재영,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종교이론〉, 《종교와 문화》, 1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1995. 132쪽.

15) *ibid.*, pp.87-97.

16) Fromm, E., *Psychoanalysis and relig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50;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1976.

17) Peck, M. S., *Further along the road less traveled*. New York: Simon & Schuster, 1993.

18) Burris, C. T., & Tarpley, W. R., *op. cit.*, pp.55-7.

19) *ibid.*, p.57.

1945년경부터 사회심리학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²⁰⁾ 종교인들을 살펴보면, 자기중심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과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런 구분은 외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이 종교를 이용하고, 내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이 종교를 통해 인생을 산다는 엘포트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엘포트는 종교인이 종교를 갖게 되는 방식을 외재적 종교정향(extrinsic orientation)과 내재적 종교 정향(intrinsic orientation)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분이 신앙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과 신앙자체가 목적인 사람을 분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로스(J. Ross)와 함께 외재적 종교정향과 내재적 종교정향을 측정할 수 있는 종교정향 척도(religious orientation scales)를 개발하였다.²¹⁾ 이때 종교정향이란 신앙에 대한 방식이나 방향(orientation)을 의미한다.²²⁾

그 후에 뱃슨과 벤티스는 종교정향의 측정 내용에 개인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통합적인 관점, 자기비판 및 의심을 할 수 있는 관점, 미완성 및 시험을 강조하면서 개인 문제를 탐색하는 관점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이들은 추가해야 할 통합성, 의심, 시험의 관점을 외재적이나 내재적 정향과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추구(quest = interactional)로서 제3의 종교 정향 척도라고 명명하였다.

뱃슨과 벤티스는 수단을 중시하는 외적 종교정향과 목적을 중시하는 내적 종교정향 이외에도, 추구(quest)를 측정하기 위해서 추구적 정향 측정을 도입하고, 이를 수단(means = external)과 목적(end = internal)에 대한 가정과 구분하였다.²⁴⁾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종교정향 척도를 종교생활의 목록(Religious Life Inventory)에 포함시켰다. 이들이 주장한 세 가지의 척도 특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적 척도(external scale)는 개인의 종교에 외부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측정함으로써 종교의 수단적 정향(means orientation)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내적 척도(internal scale)는 개인의 종교를 내적 욕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종교의 목적적 정향(end orientation)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 척도(interactional scale)는 인생의 비극에 의해 야기된 실존적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대응적 대화를 함으로써

20) Batson, C. D., & Ventis, W. L.,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21) Allport, G. W., & Ross, J. M.,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22) 백승치·김동기, 〈종교정향에 따른 종교인의 유형연구 : 천주교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한국심리학회, 1994. 86쪽.

23) Batson, C. D., & Ventis, *op. cit.* 참조.

24) *ibid.* 참조.

개인의 종교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추구적 정향(quest orientation)을 측정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목적 정향(end orientation)과 추구적 정향(quest orientation)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추구적 정향이 종교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미를 두는 신앙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성향이기에 때문에, 복음주의자의 경우는 목적 정향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추구적 요인에는 낮은 점수가 나타나고, 사회봉사자와 같은 경우는 추구적 요인에 높은 점수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에서도 목적 요인과 추구적 요인의 척도는 두개의 상이한 측면을 측정해주었고, 각 개인들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변별하는 자료들이 나왔다.

앨포트에 의해서 소개된 이래로, 비록 개념적으로나 방법론적 기반에 대해 비평이 있기는 하지만, 종교정향 구조는 종교심리학에서 활용성이 높고 실증적으로 성과 있는 구조로 인정되어 왔다.²⁵⁾ 종교정향의 세 가지 형태는 실증적 관심의 대상 즉, 내적·외적·추구적 등이다. 내적 정향은 역사적으로 정의되고 자체가 목적인 종교로서 다른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여 자체가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는 구조이다.²⁶⁾ 그러나 내적 정향이 자기-고양 목적과 별개라는 가정은 의문시 되어왔다.²⁷⁾ 최소한, 측정치로서의 내적 정향은 강렬하지 않고, 엄격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종교적 정통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⁸⁾

또한 외적 정향은 내적 정향의 동기적 섬세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 관여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용성과 연합되어 있다. 특히, 종교적 참여는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욕구 즉, 개인적 안락과 사회적 지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되어왔다. 그리하여 내적 정향을 위해 강한 정통성에 관여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외적 정향을

25) Donahue, M. J.,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985; Burris, C. T., *Religious orientation: A field-theoretical analysis*. University of Kansas, 1994b; Burris, C. T., June. Religious orientation and social identity: Towards a theoretical integ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1997.

26) Allport, G. W., & Ross, J. M., *op. cit.* 참조.

27) Burris, C. T., Batson, C. D., Altstaedten, M., & Stephens, K., What a friend . . . : Loneliness as a motivator of intrinsic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 1994.

28) Batson, C. D., Schoenrade, P. A., & Ventis, W. L., *Religion and the individual: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1993; Burris, C. T., & Jackson, L. M., *Social Identity and the true believer: Responses to marginalization the intrinsically religious*, 1997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Kirpatrick, L. A., & Hood, R. W., Jr.,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The boon or of contemporary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1990.

부족하게 하는 것이다.²⁹⁾ 그리고 추구적 정향은 의문을 해결하려는 의지, 실존적 의문에 직면했을 때, 변화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 등을 반영하고 있다.³⁰⁾ 부리스, 잭슨(L. Jackson), 타플레이, 그리고 스미스(G. Smith)는 최근에 이 개념화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공하였다.³¹⁾ 즉, 추구는 일반 사회집단이나 종교집단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위안의 행동들과 연관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부리스는 엘포트와 로스³²⁾의 내적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내적 정향의 배타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한다.³³⁾ 즉, 높은 내적 점수는 중간 정도의 내적 점수, 외적 그리고 추구적 정향의 평균 이하 점수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종교적 경계 내³⁴⁾(내적 정향)에 동기화 할 수 있는 사람은, 동시에 초월성³⁵⁾(내재성)을 가지려 노력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정향과 내재성(immanence) 간에 유사한 상호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히 말하면, 우리는 그 상호성이 역으로 곡선 관계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내적 정향과 내재성이 높은 수준에서는 현저하게 부적으로 상관된다는 것이다.³⁶⁾ 대조적으로, 외적 정향·추구적 정향·내재성 모두는 정통성 헌신 측면에서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³⁷⁾ 우리는 내재성이 외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내재성은 개념적으로 이 두개의 정향과 구별되기 때문에, 나타난 정적 상관은 강하지 않고 보통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종교적 내재성은 종교의 정향으로서 신앙적 경계를 초월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해 자각과 수용을 하고,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의 경험을 지향하는 신앙적

29) Allport, G. W., *op. cit.*; Allport, G. W., & Ross, J. M., *op. cit.*; Kirpatrick, L. A.,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Allport-Ross and Feagin measure of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 1989.

30) Batson, C. D., Schoenrade, P. A., & Ventis, W. L., *op. cit.* 참조.

31) Burris, C. T., Jackson, L. M., Tarpley, W. R., & Smith, G. J., Religion as quest: The self-directed pursuit of mea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996.

32) Allport, G. W., & Ross, J. M., *op. cit.* 참조.

33) Burris, C. T., Curvilinearity and religious types: A second look at intrinsic, extrinsic, and quest re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4, 1994a.

34) Burris, C. T., & Jackson, L. M., *op. cit.* 참조.

35) Berger, P. L., *The heretical imperative*. New York: Anchor, 1979; Maslow, A. H., *op. cit.*; Peck, M. S., *op. cit.* 참조.

36) Burris, C. T., *op. cit.*, 1994a.

37) Burris, C. T., *op. cit.*; 1994b; Burris, C. T., Jackson, L. M., Tarpley, W. R., & Smith, G. J., *op. cit.*; Kirpatrick, L. A., *op. cit.*, 1989.

성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내재성은 모든 종교의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며, 각각의 신앙인들은 종교정향을 가지고 있다.³⁸⁾ 그리고 낙관적 성품 종교의 인격³⁹⁾이 있으며, 자아를 초월하여 자기실현으로 이어가려는 절정경험 등으로 자기의 이상이나 고귀한 가치를 향해 성장하고자 하는 신앙적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신도 수에 의한) 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성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내재성 척도(immanence scales)와 종교정향 척도(religious orientation scales)를 이용하여, 종교인들 간의 의식 차이를 검증하여 종교 간 비교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서 내재성, 종교정향, 종교의식들 간의 상관관계 유의미성은 어느 정도인가?
2.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서 내재성(수용성, 경계성, 현재성)의 정도에 따른 신앙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3.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서 내재성(수용성, 경계성, 현재성)과 종교정향(외적, 내적, 추구적)의 정도가 종교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II. 방 법

1.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전체 819명이며, 이 가운데 남자가 298명(36.4%), 여자가 521명(63.6%)이다. 종교별 분포는 개신교 247명(30.2%), 불교 261명(31.9%), 천주교 311명(37.9%)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피험자들의 연령 분포는 14세에서 77세까지 정상분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신분은 직장인 214명(26.1%), 주부 205명(25.0%), 대학생 154명(18.8%), 고등학생 112명(13.7%), 기타 134명(16.4%)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피험자의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자가 430명(52.7%)이고, 미혼자가 386명(47.3%)으로 나타났고, 기혼자 가운데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사람은 373명(79.2%)이고,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57명(20.8%)이었다.

38) Allport, G. W., *op. cit.*; Batson, C. D., & Ventis, W. L., *op. cit.*, 1982.

39) James, W., *op. cit.* 참조.

<표 I> 피험자의 성별, 종교별 분포

총 계	성 별		종 교 별		
	남자	여자	개신교	불교	천주교
819 (100%)	298 (36.4%)	521 (63.6%)	247 (30.2%)	261 (31.9%)	311 (37.9%)

2. 설문지

본 연구의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 가운데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7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 1) 독립변인
 - (1)인구통계 변인 : 성별, 연령별, 신분별, 결혼여부
 - (2)내재성 척도(24개 문항) : 현재-정향, 자각-수용, 경계수준⁴⁰(Immanence Scale)
 - (3)종교정향 척도(27개 문항) : 외적 정향,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⁴¹(Religious Orientation Scales)
- 2) 종속변인
 - (1)종교적 의식 변인 : 신앙경력, 신앙심정도, 신앙중요도

3. 조사 방법 및 자료처리

조사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설문조사 문항은 선다형 혹은 척도로 구성되었다. 조사 방법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교회, 법당, 성당들을 중심으로 무선 표집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통계적 방법은 상관계수와 변량분석이다. 상관계수는 두 변인 간의 상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경우($r=1.00$)와 가장 낮은 경우($r=0.00$) 사이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다. 변량분석은 독립변인(2개)의 정도에 따라 종속변인이 의미 있게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즉, 2 x 2 변량분석의 경우는 공변량(共變量)의 개념으로 독립변인(2개)이 각각 양극 사이로 변하는데 따라서 종속변인 값의 차이가 의미 있는지를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또한 변량분석의 독립변인들의 점수에서, 수준이 높고 낮은 집단을 구분하기

40) Burris, C. T., & Tarpley, W. R., *op. cit.* 참조.
41) Batson, C. D., & Ventis, W. L., *op. cit.* 참조.

위하여 통계적 방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상위 30%, 하위 30%의 고저(高低) 점수 집단으로 나누어 차의 검증에 이용하는 통계 처리를 하였다.

III. 결 과

1. 변인들의 주요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서 종교적 내재성, 종교정향, 종교의식들 간의 상관관계 유의미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종교적 내재성 척도는 수용성, 경계성, 현재성으로 하위 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종교정향 척도는 외적, 내적, 추구적 정향으로 하위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세 종교 전체 집단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종교전체 신도들의 종교의식 항목에 해당하는 자기의 신앙심 정도(신앙심 정도)와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신앙중요도)간의 상관관계는 $r=.498$ ($p<.001$)로서 상당히 높지만, 이 둘 가운데서 다른 척도 항목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신앙중요도가 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중요도는 내적 정향과의 상관에서 $r=.647$ ($p<.001$)의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내재성의 경계성과의 상관관계 ($r=-.076$)를 제외한 모든 항목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정향의 하위 척도(3가지)들 간의 상관관계는 외적 정향과 내적 정향 간의 상관이 $r=.573$ ($p<.001$), 외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 간의 상관이 $r=.357$ ($p<.001$), 내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 간의 상관이 $r=.391$ ($p<.001$)로서 모두 유의미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기존의 연구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종교적 내재성의 하위 척도(3가지)들 간의 상관관계는 수용성과 경계성 간의 상관이 $r=.107$, 수용성과 현재성 간의 상관이 $r=.188$ ($p<.01$), 현재성과 경계성 간의 상관이 $r=.113$ 으로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 내재성 척도들과 종교정향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는 수용성과 내적 정향 간의 상관($r=.366$, $p<.001$), 현재성과 내적 정향 간의 상관($r=.362$, $p<.0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그 외는 유의미한 상관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계성은 다른 항목들과 역상관을 이루거나 낮은 상관을 나타내어 가장 예측력이 낮은 내재성 척도 항목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세 종교들 간의 비교(표로 제시되지 않음)에서는 종교적 내재성 척도와 종교정향 척도 모두에서 불교가 가장 상관관계들이 높고, 그 다음이 천주교, 개신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서, 세 종교 가운데 불교가 종교적 내재성과 종교정향에 대

42) Burris, C. T., & Tarpley, W. R., *op. cit.*; Batson, C. D., & Ventis, W. L., *op. cit.* 참조.

한 예측력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중요도와 종교정향 척도들 간의 상관성에서는 내적 정향(불교 $r=.668$, 개신교 $r=.598$, 천주교 $r=.55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앙중요도와 종교적 내재성 척도들 간의 상관성에서는 현재성(불교 $r=.451$, 개신교 $r=.389$, 천주교 $r=.265$)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표 2> 종교의식과 척도들의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 (N=819)

	신앙심 정도	신앙 중요도	외적	내적	추구	수용	경계	현재
신앙심 정도								
신앙 중요도	.498***							
외적	.312***	.477***						
내적	.342***	.647***	.573***					
추구	.253***	.388***	.357***	.391***				
수용	.123**	.308***	.305***	.366***	.281***			
경계	-.035	-.076	-.105	-.126**	.177**	.107		
현재	.309***	.370***	.212***	.362***	.234***	.188**	.113	

** $P < .01$ *** $P < .001$

2. 종교적 내재성 정도에 따른 종교 간의 t 검증 분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서 종교적 내재성 즉, 수용성, 경계성, 현재성의 점수 정도에 따른 신앙의식(신앙중요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표 3>에서 먼저 살펴보면, 천주교의 경계성 점수 고저(高低)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내재성 하위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내재성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천주교인은 내재성의 경계성에 대해서만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세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경계성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개신교는 경계성에서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역으로 응답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근본주의 의식에 의한 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종교 전체적 측면에서 종교적 내재성의 하위 척도를 고찰하면, 신앙인들이 현재

성($t=-10.41, p<.001$)의 고저(高低)에 따라서 신앙중요도의 의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이 수용성($t=-8.19, p<.001$), 경계성($t=2.01, p<.05$)의 순으로 나타내었다. 종교별 비교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개신교는 경계성($t=3.17, p<.01$)고저(高低)에서 역으로 가장 큰 차이의 신앙중요도를 나타내었고, 수용성($t=-1.98, p<.05$)고저(高低)에서 가장 낮은 차이의 신앙중요도를 나타내었다. 불교는 현재성($t=-7.73, p<.001$)고저(高低)에서 가장 큰 차이의 신앙중요도를 보였고, 경계성($t=-3.30, p<.01$)고저(高低)에서 가장 낮은 차이의 신앙중요도를 나타내었다. 천주교는 현재성($t=-3.96, p<.001$)고저(高低)에서 가장 큰 차이의 신앙중요도를 보였고, 경계성($t=-1.16, p>.05$)고저(高低)에서 가장 낮은 무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3> 내재성 점수 高低에 따른 신앙 중요도의 t검증 결과

내재성 점수	종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수용성 점수 高低					
	전체	286	3.79	1.06	-8.19 ***
	개신교	77	4.37	0.87	-1.98 *
	불교	82	3.18	0.91	-7.67 ***
	천주교	93	3.93	1.09	-3.79 ***
경계성 점수 高低					
	전체	286	4.25	1.01	2.01 *
	개신교	77	4.64	0.87	3.17 **
	불교	82	3.47	1.15	-3.30 **
	천주교	93	4.07	0.95	-1.16
현재성 점수 高低					
	전체	286	3.73	1.05	-10.41 ***
	개신교	77	4.06	1.07	-5.21 ***
	불교	82	3.32	0.90	-7.73 ***
	천주교	93	3.83	1.07	-3.96 ***

* $p<.05$ ** $p<.01$ *** $p<.001$

3. 내재성과 종교정향의 정도가 종교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량분석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문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서 종교적 내재성 즉, 수용성, 경계성, 현재성의 점수 정도와 종교정향 즉, 외적 정향,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의 정도가 종교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상호작용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재성의 하위 척도(3개)와 종교정향 하위 척도(3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앙중요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 x 2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들은 종교적 내재성의 수용성(표 4), 경계성(표 5), 현재성(표 6)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1) 수용성(내재성)과 종교정향 점수 고저(高低)에 따른 신앙중요도에 관한 변량분석

다음의 <표 4>는 종교적 내재성의 수용성과 종교정향 척도들(외적 정향,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 간의 공변성을 검증한 결과로서, 종교전체,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 종교 전체에서는 수용성과 종교정향 점수 고저(高低)에 따른 신앙중요도에 관한 주효과(독립변인 각각의 유의미 정도를 검토)와 상호작용(두개의 독립변인 모두의 유의미 정도를 검토) 모두에서 척도들 간의 차이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성 x 외적 정향 변량분석 : 종교 전체에서는 주효과 즉, 수용성($F=68.8$, $p<.001$), 외적 정향($F=38.46$, $p<.001$)과 상호작용($F=19.42$, $p<.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수용성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외적 정향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은 신앙중요도 점수로 볼 때, 수용성이 높은 경우에 외적 정향이 낮고 역으로 수용성이 낮은 경우에 외적 정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각 종교집단에서 개신교의 경우는, 외적 정향의 주효과($F=5.74$, $p<.05$)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공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경우는, 수용성의 주효과($F=18.04$, $p<.001$)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공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의 경우는, 수용성($F=15.52$, $p<.001$)과 외적 정향($F=6.77$, $p<.05$)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5.17$, $p<.05$)에서도 유의미한 공변성이 나타났다.

수용성 x 내적 정향 변량분석 : 종교전체에서는 주효과 즉, 수용성($F=72.89$, $p<.001$), 내적 정향($F=68.94$, $p<.001$)과 상호작용($F=3.65$, $p<.05$)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수용성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내적 정향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은 신앙중요도 점수로 볼 때, 수용성이 높은 경우에 내적 정향이 낮고 역으로 수용성이 낮은 경우에 내적 정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각 종교집단에서 개신교의 경우는, 내적 정향의 주효과($F=19.94, p<.001$)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공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경우는, 수용성($F=43.56, p<.001$)과 내적 정향($F=39.95,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공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의 경우는, 수용성($F=17.87, p<.001$)과 내적 정향($F=15.89,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5.04, p<.05$)에서도 유의미한 공변성이 나타났다.

수용성 x 추구적 정향 변량분석 : 종교전체에서는 주효과 즉, 수용성($F=71.76, p<.001$), 추구적 정향($F=42.48, p<.001$)과 상호작용($F=15.87, p<.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수용성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추구적 정향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은 신앙중요도 점수로 볼 때, 수용성이 높은 경우에 추구적 정향이 낮고 역으로 수용성이 낮은 경우에 추구적 정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각 종교집단에서 개신교의 경우는, 수용성($F=4.87, p<.05$)과 추구적 정향($F=5.22, p<.05$)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4.53, p<.05$)에서도 유의미한 공변성이 나타났다. 불교의 경우, 수용성($F=50.63, p<.001$)과 추구적 정향($F=30.25,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만 상호작용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천주교의 경우, 수용성($F=15.71, p<.001$)과 추구적 정향($F=6.22, p<.05$)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9.25, p<.01$)에서도 공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수용성(내재성) 및 종교정향 점수 高低에 따른 신앙 중요도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수용성(내재성) x 외적(종교정향)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3종교전체)					(개신교)				
수용성(A)	51.46	1	51.46	68.08***	수용성(A)	2.42	1	2.42	3.49
외적(B)	29.07	1	29.07	38.46***	외적(B)	3.99	1	3.99	5.74 *
A x B	14.67	1	14.67	19.42***	A x B	0.17	1	0.17	0.25
집단내	145.15	192	0.75		집단내	28.51	41	0.69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불교)					(천주교)				
수용성(A)	20.16	1	20.16	18.04***	수용성(A)	13.58	1	13.58	15.52***
외적(B)	2.49	1	2.49	2.23	외적(B)	5.92	1	5.92	6.77*
A x B	0.33	1	0.33	0.30	A x B	4.52	1	4.52	5.17*
집단내	43.60	39	1.11		집단내	36.76	42	0.87	
수용성(내재성) x 내적(종교정향)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3종교전체)					(개신교)				
수용성(A)	53.09	1	53.09	72.89***	수용성(A)	0.49	1	0.49	0.46
내적(B)	50.21	1	50.21	68.94***	내적(B)	21.66	1	21.66	19.94***
A x B	2.66	1	2.66	3.65*	A x B	0.62	1	0.62	0.58
집단내	118.73	168	0.72		집단내	34.76	32	1.08	
(불교)					(천주교)				
수용성(A)	21.66	1	21.66	43.56***	수용성(A)	14.41	1	14.41	17.87***
내적(B)	19.87	1	19.87	39.95***	내적(B)	12.81	1	12.81	15.89***
A x B	0.20	1	0.20	0.40	A x B	4.06	1	4.06	5.04*
집단내	19.89	40	19.89		집단내	43.54	54	0.80.	
수용성(내재성) x 추구적(종교정향)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3종교전체)					(개신교)				
수용성(A)	52.41	1	52.41	71.76***	수용성(A)	2.00	1	2.00	4.87*
추구적(B)	31.02	1	31.02	42.48***	추구적(B)	2.14	1	2.14	5.22*
A x B	11.58	1	11.58	15.87***	A x B	1.86	1	1.86	4.53*
집단내	140.23	192	0.73		집단내	11.49	28	0.41	
(불교)					(천주교)				
수용성(A)	30.20	1	30.20	50.63***	수용성(A)	13.82	1	13.82	15.71***
추구적(B)	18.04	1	18.04	30.25***	추구적(B)	5.47	1	5.47	6.22*
A x B	0.05	1	0.05	0.10	A x B	8.14	1	8.14	9.25**
집단내	28.04	47	0.59		집단내	40.47	46	0.87	

* $p<.05$ ** $p<.01$ ** $p<.001$

2) 경계성(내재성)과 종교정향 점수 고저(高低)에 따른 신앙중요도에 관한 변량분석

다음의 <표 5>는 종교적 내재성의 경계성과 종교정향 척도들(외적 정향,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 간의 공변성을 검증한 결과로, 종교전체,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 종교 전체에서는 경계성과 외적 정향 및 내적 정향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나 경계성과 추구적 정향에서는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서 경계성 척도가 다른 척도들에 비해 공변적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경계성 x 외적 정향 변량분석 : 종교전체에서 주효과는 외적 정향($F=95.44$,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상호작용($F=10.96$, $p<.01$)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경계성에서는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외적 정향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은 신앙중요도 점수로 볼 때, 경계성이 높은 경우에 외적 정향이 낮고 역으로 경계성이 낮은 경우에 외적 정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각 종교집단에서 개신교의 경우는 주효과 즉, 경계성($F=12.92$, $p<.001$)과 외적 정향($F=9.01$, $p<.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공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경우는, 주효과 즉, 경계성($F=12.96$, $p<.001$)과 외적 정향($F=19.02$,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의 경우 경계성($F=6.07$, $p<.05$)과 외적 정향($F=14.76$,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4.91$, $p<.05$)에서도 유의미한 공변성이 나타났다.

경계성 x 내적 정향 변량분석 : 종교전체에서는 주효과 즉, 경계성($F=4.23$, $p<.05$), 내적 정향($F=226.95$, $p<.001$)과 상호작용($F=5.46$, $p<.05$)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경계성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내적 정향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은 신앙중요도 점수로 볼 때, 경계성이 높은 경우에 내적 정향이 낮고 역으로 경계성이 낮은 경우에 내적 정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각 종교집단에서 개신교의 경우는, 두개의 주효과 경계성($F=9.46$, $p<.01$)과 내적 정향($F=38.35$,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공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경우는, 경계성($F=8.21$, $p<.01$)과 내적 정향($F=105.40$,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7.68$, $p<.01$)에서도 유의미한 공변성이 나타났다. 천주교의 경우는, 주효과는 내적 정향($F=38.56$, $p<.001$)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에서는 공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경계성 x 추구적 정향 변량분석 : 종교전체에서는 추구적 정향($F=67.53$, $p<.001$)의 주효과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경계성에서는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추구적 정향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에서도 경계성과 추구적 정향간의 변량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종교집단에서 개신교의 경우도 추구적 정향($F=9.26$, $p<.01$)의 주효과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불교의 경우, 경계성($F=41.63$, $p<.001$)과 추구적 정향($F=54.41$,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F=9.07$, $p<.01$)에서도 공변성이 유의미하였다. 천주교의 경우, 추구적 정향($F=7.40$, $p<.01$)의 주효과만 유의미하며 상호작용에서는 공변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경계성(내재성) 및 종교정향 점수 高低에 따른 신앙중요도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경계성(내재성) x 외적(종교정향)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3종교전체)					(개신교)				
경계성(A)	1.13	1	1.13	1.47	경계성(A)	7.72	1	7.72	12.92***
외적(B)	74.02	1	74.02	95.44***	외적(B)	5.38	1	5.38	9.01**
A x B	8.50	1	8.50	10.96**	A x B	0.04	1	0.04	0.07
집단내	201.65	260	0.77		집단내	36.45	61	0.59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불교)					(천주교)				
경계성(A)	12.09	1	12.09	12.96***	경계성(A)	4.40	1	4.40	6.07*
외적(B)	17.75	1	17.75	19.02***	외적(B)	10.69	1	10.69	14.76***
A x B	2.29	1	2.29	2.45	A x B	3.55	1	3.55	4.91*
집단내	39.18	42	0.93		집단내	33.33	46	0.72	
경계성(내재성) x 내적(종교정향)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3종교전체)					(개신교)				
경계성(A)	2.64	1	2.64	4.23*	경계성(A)	6.40	1	6.40	9.46**
내적(B)	141.90	1	141.90	226.95***	내적(B)	25.95	1	25.95	38.35***
A x B	3.41	1	3.41	5.46*	A x B	0.14	1	0.14	0.21
집단내	143.18	229	0.62		집단내	41.28	61	0.67	
(불교)					(천주교)				
경계성(A)	3.09	1	3.09	8.21**	경계성(A)	0.46	1	0.46	0.44
내적(B)	39.77	1	39.77	105.40***	내적(B)	30.76	1	30.76	38.56***
A x B	2.89	1	2.89	7.68**	A x B	0.24	1	0.24	0.31
집단내	16.22	43	0.37		집단내	46.26	58	0.79	
경계성(내재성) x 추구적(종교정향)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3종교전체)					(개신교)				
경계성(A)	0.01	1	0.01	0.02	경계성(A)	1.74	1	1.74	2.26
추구적(B)	52.50	1	52.50	67.53***	추구적(B)	6.17	1	6.17	9.26**
A x B	0.77	1	0.77	0.99	A x B	0.01	1	0.01	0.03
집단내	194.40	250	0.77		집단내	39.33	59	0.66	
(불교)					(천주교)				
경계성(A)	19.52	1	19.52	41.63***	경계성(A)	2.82	1	2.28	3.35
추구적(B)	25.51	1	25.51	54.41***	추구적(B)	6.23	1	6.23	7.40**
A x B	4.25	1	4.25	9.07**	A x B	0.05	1	0.05	0.06
집단내	20.63	44	0.46		집단내	53.07	63	0.84	

* $p<.05$ ** $p<.01$ *** $p<.001$

3) 현재성(내재성)과 종교정향 점수 고저(高低)에 따른 신앙중요도에 관한 변량분석

다음의 <표 6>은 종교적 내재성의 현재성과 종교정향 척도들(외적 정향,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 간의 공변성을 검증한 결과로서 종교전체,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 종교 전체에서는 현재성과 세 정향 척도 모두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나, 종교별로는 현재성과 추구적 정향에서만 세 종교에서 상호작용의 공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현재성 x 외적 정향 변량분석 : 종교전체에서는 주효과 즉, 현재성($F=60.59$, $p<.001$), 외적 정향($F=24.63$, $p<.001$)과 상호작용($F=7.63$, $p<.01$) 모두에서 유의미한 공변성을 나타내었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현재성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외적 정향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은 신앙중요도 점수로 볼 때, 현재성이 높은 경우에 외적 정향이 낮고 역으로 현재성이 낮은 경우에 외적 정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각 종교집단에서 개신교의 경우도 현재성($F=10.18$, $p<.01$), 외적 정향($F=7.46$, $p<.05$)의 주효과에서 유의미하였고 상호작용($F=1.34$, $p<.05$)에서도 유의미한 공변성을 나타내었다. 불교의 경우는, 현재성의 주효과($F=36.53$, $p<.001$)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상호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공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의 경우는, 현재성($F=5.90$, $p<.05$)과 외적 정향($F=12.13$, $p<.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에서는 공변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현재성 x 내적 정향 변량분석 : 종교전체에서는 주효과 즉, 현재성($F=98.50$, $p<.001$), 내적 정향($F=78.46$, $p<.001$)과 상호작용($F=3.99$, $p<.05$)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현재성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내적 정향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은 신앙중요도 점수로 볼 때, 현재성이 높은 경우에 내적 정향이 낮고 역으로 현재성이 낮은 경우에 내적 정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각 종교집단에서 개신교의 경우는, 현재성($F=24.48$, $p<.001$)과 내적 정향($F=23.56$,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에서는 공변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불교의 경우도 현재성($F=89.36$, $p<.001$)과 내적 정향($F=59.87$,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에서는 공변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천주교의 경우도 현재성($F=15.46$,

$p<.001$)과 내적 정향($F=11.58$, $p<.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에서는 공변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현재성 x 추구적 정향 변량분석 : 종교전체에서는 주효과 즉, 현재성($F=103.63$, $p<.001$), 추구적 정향($F=20.45$, $p<.001$)과 상호작용($F=13.53$, $p<.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현재성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추구적 정향이 높고 낮은 사람의 경우에 각각의 신앙중요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은 신앙중요도 점수로 볼 때, 현재성이 높은 경우에 추구적 정향이 낮고 역으로 현재성이 낮은 경우에 추구적 정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각 종교집단에서 개신교의 경우도, 현재성($F=16.96$, $p<.001$)과 추구적 정향($F=5.95$, $p<.05$)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10.41$, $p<.05$)에서도 유의미한 공변성이 나타났다. 불교의 경우도 현재성($F=78.29$, $p<.001$)과 추구적 정향($F=36.01$,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9.00$, $p<.01$)에서도 유의미한 공변성이 나타났다. 천주교의 경우도 수용성($F=22.31$, $p<.001$)과 추구적 정향($F=9.44$, $p<.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8.23$, $p<.01$)에서도 공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6> 현재성(내재성) 및 종교정향 점수 高低에 따른 신앙중요도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현재성(내재성) x 외적(종교정향)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3종교전체)					(개신교)				
현재성(A)	45.01	1	45.01	60.59***	현재성(A)	6.03	1	6.03	10.18**
외적(B)	18.29	1	18.29	24.63***	외적(B)	4.42	1	4.42	7.46*
A x B	5.66	1	5.66	7.63**	A x B	0.79	1	0.79	1.34
집단내	135.94	183	0.74		집단내	15.41	26	0.59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불교)					(천주교)				
현재성(A)	23.00	1	23.00	36.53***	현재성(A)	5.65	1	5.65	5.90*
외적(B)	0.69	1	0.69	1.10	외적(B)	11.62	1	11.62	12.13**
A x B	0.14	1	0.14	0.24	A x B	0.62	1	0.62	0.66
집단내	28.97	46	0.62		집단내	45.06	47	0.95	
현재성(내재성) x 내적(종교정향)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3종교전체)					(개신교)				
현재성(A)	62.82	1	62.82	98.50***	현재성(A)	16.16	1	16.16	24.48***
내적(B)	50.04	1	50.04	78.46***	내적(B)	15.55	1	15.55	23.56***
A x B	2.54	1	2.54	3.99*	A x B	1.28	1	1.28	1.95
집단내	101.42	159	0.63		집단내	23.76	36	0.66	
(불교)					(천주교)				
현재성(A)	32.36	1	32.36	89.36***	현재성(A)	14.70	1	14.70	15.46***
내적(B)	21.68	1	21.68	59.87***	내적(B)	11.01	1	11.01	11.58**
A x B	0.98	1	0.98	2.72	A x B	0.74	1	0.74	0.79
집단내	17.75	49	0.36		집단내	47.54	50	0.95	
현재성(내재성) x 추구적(종교정향)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3종교전체)					(개신교)				
현재성(A)	67.65	1	67.65	103.63***	현재성(A)	6.31	1	6.31	16.96***
추구적(B)	12.97	1	12.97	20.45***	추구적(B)	2.21	1	2.21	5.95*
A x B	8.58	1	8.58	13.53***	A x B	3.87	1	3.87	10.41**
집단내	109.75	173	0.63		집단내	12.66	34	0.37	
(불교)					(천주교)				
현재성(A)	30.04	1	30.04	78.29***	현재성(A)	16.28	1	16.28	22.31***
추구적(B)	13.82	1	13.82	36.01***	추구적(B)	6.89	1	6.89	9.44**
A x B	3.45	1	3.45	9.00**	A x B	6.00	1	6.00	8.23**
집단내	18.42	48	0.38		집단내	35.04	48	0.73	

* $p<.05$ ** $p<.01$ **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신자들 간의 내재성 차이를 검증하여 신앙인들을 이해하고, 종교 간의 의식차이를 비교 연구하여 한국 종교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세 종교에서 내재성, 종교정향, 종교의식들 간의 상관관계 유의미성을 고찰한다. 둘째, 세 종교에서 내재성(수용성, 경계성, 현재성)의 정도에 따른 신앙의식의 유의미성을 고찰한다. 셋째, 세 종교 내재성과 종교정향(외적, 내적, 추구적)의 정도가 종교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성을 고찰한다.

이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 종교 성인신도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내재성 척도와 종교정향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의 생활에서의 신앙중요도(신앙의식)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 현재성과 수용성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r)가 유의미하고, 경계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앙중요도(신앙의식)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재성의 현재성과 수용성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경계성과의 상관관계($r = -.076$)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한국의 신앙인들은 현재성과 수용성 측면에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내재성의 수용성과 현재성의 개념이 제임스가 주장한 낙관적 성품의 종교(healthy-minded religion) 개념 및 매슬로우가 주장한 절정경험(peak-experience)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때, 한국 신앙인들은 신앙의 개념을 경계를 배타적으로 구분을 짓는 것보다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종교적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정향의 하위 척도들의 상관관계에서는 외적 정향과 내적 정향 간의 상관, 외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 간의 상관, 내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 간의 상관이 모두 유의미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이 신앙인 집단은 종교정향에 대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재성 하위 척도보다 종교정향의 하위척도들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로 보아서, 내재성의 척도들이 종교정향 척도보다 신앙의식 변별력이 더 약한 것으로 보인다. 환언하면, 이 피험자 집단의 신앙인들에게는 종교적 내재성 척도 문항들이 종교정향 척도 문항보다 더 어려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 종교들 간의 비교(표로 제시되지 않음)에서는 종교적 내재성 척도와 종교정향 척도 모두에서 불교가 가장 상관관계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천주교, 개신

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세 종교 가운데 불교가 종교적 내재성과 종교정향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2. 내재성 차이의 t-검증에서 불교는 모든 하위 척도에서 유의성이 가장 높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현재성에서 높다.

세 종교 전체에서 보면, 신앙인들이 현재성과 수용성에서 신앙중요도 의식의 차이가 크게 유의미성을 나타내어, 현재를 충분히 인식하는 신앙생활과 스스로의 신앙적 수행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종교인을 배척한다든지 종교적 신념의 진리를 분명하게 구분하려는 경계의 주장은 강하지 않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로 이 집단의 신앙인들은 매슬로우의 초월욕구(meta-need) 이론과 같이 악을 의도적으로 극소화시키고 모든 사물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낙관적 성품의 인격을 지향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집단 별로 분석하여 드러난 특징들을 보면, 경계성에서 다른 종교와 달리 개신교가 유일하게 신앙중요도에 대한 의식이 약한 신도들이 근본주의와 같은 강한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천주교는 경계성에서 차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는 천주교가 다른 종교보다 경계성의 의식이 가장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세 종교 간에 차이 나는 특징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즉, 불교는 내재성의 하위 척도 세 가지 모두를 가장 잘 이해하고 분명하게 신앙적 의식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천주교는 세 종교 가운데 가장 약하게 내재성 의식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는 다른 두 종교와 반대로 지향하는 신앙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3. 변량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내재성 척도는 종교정향 척도와 같이 신앙중요도 의식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종교 전체에서, 내재성의 수용성과 종교정향 척도들(외적 정향,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 간의 변량분석(2×2)을 검증한 결과, 수용성과 종교정향 점수 고저(高低)에 따른 신앙중요도에 관한 주효과(독립변인 각각의 유의미 정도를 검토)와 상호작용(두 개의 독립변인 모두의 유의미 정도를 검토) 모두에서 척도들 간의 차이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내재성의 수용성 척도(독립변인)와 종교정향 척도(독립변인)의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각각 가진 사람이 신앙중요도 의식(종속변인) 점수에 공변적(共變的)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재성의 경계성과 종교정향 척도들(외적 정향,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 간의 공변성을 검증한 결과는 세 종교 전체에서 볼 때, 경계성과 외적 정향 및 내적 정향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나 경계성과 추구적 정향에서는 상호작용이 유의미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재성의 현재성과 종교정향 척도들(외적 정향,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 간의 공변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세 종교전체에서는 현재성과 세 정향 척도 모두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나, 종교별로는 현재성과 추구적 정향에서만 세 종교에서 상호작용의 공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리스는 종교적 정향의 내적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내적 정향의 배타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한다.⁴³⁾ 즉, 높은 내적 점수는 중간 정도의 내적 점수, 외적 그리고 추구적 정향의 평균 이하 점수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경계성에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은, 동시에 초월성⁴⁴⁾을 가지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정향과 내재성 간에는 유사한 상호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그 상호성이 역으로 곡선 관계를 이룰 것이 예측되고, 내적 정향과 내재성은 높은 수준에서는 현저하게 부적으로 상관된다는 것이다.⁴⁵⁾ 반대로, 외적 정향·추구적 정향·내재성 모두 어떤 정도에서는 정통성 현신에 있어서 가치 저하 수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⁴⁶⁾ 내재성이 외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내재성은 개념적으로 이 두개의 정향과 구별되기 때문에, 나타난 정적 상관은 강하지 않고 보통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의 변량분석에서 각 종교집단별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보면, 내재성 하위 척도 세 가지 가운데 수용성에서는 천주교가 가장 유의미성이 강하고, 경계성에서는 불교가 가장 강한 유의미성을 보였고, 현재성에서는 개신교가 가장 강한 유의미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이 세 가지 내재성 하위 척도 모두가 종교정향의 추구적 정향에서만 각각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다. 각각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적 내재성의 수용성에서 천주교의 경우는 수용성($F=15.71, p<.001$)과 추구적 정향($F=6.22, p<.05$)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9.25, p<.01$)에서도 공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용성과 종교정향 간의 변량분석 결과에서 가장 강한 차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로서, 천주교인은 수용성 성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크고, 그에 따라 교차적으로 추구적 정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동시에 구별되는 신앙성이 나타났다. 즉, 높은 점수의 수용성을 지니고 동시에 낮은 추구적 정향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점수의 신앙중요도 점수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3) Burris, C. T., *op. cit.*, 1994a.

44) Maslow, A. H., *op. cit.*, 1964; Peck, M. S., *op. cit.* 참조.

45) Burris, C. T., *op. cit.*, 1994a.

46) Burris, C. T., Jackson, L. M., Tarpley, W. R., & Smith, G. J., *op. cit.* 참조.

종교적 내재성의 경계성에서, 불교의 경우, 경계성($F=41.63$, $p<.001$)과 추구적 정향($F=54.41$,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F=9.07$, $p<.01$)에서도 공변성이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경계성과 종교정향 간의 변량분석 결과에서 가장 강한 차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서, 불교인의 경우에 경계성 성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크고, 그에 따라 교차적으로 추구적 정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동시에 구별되는 신앙성이 나타났다. 즉, 높은 점수의 경계성을 지니고 동시에 낮은 추구적 정향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점수의 신앙중요도 점수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교적 내재성의 현재성에서 개신교의 경우, 현재성($F=16.96$, $p<.001$)과 추구적 정향($F=5.95$, $p<.05$)의 주효과가 유의미하며 상호작용($F=10.41$, $p<.05$)에서도 유의미한 공변성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성과 종교정향 간의 변량분석 결과에서 가장 강한 차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서, 개신교인의 경우에 현재성 성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크고, 그에 따라 교차적으로 추구적 정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동시에 구별되는 신앙성이 나타났다. 즉, 높은 점수의 현재성을 지니고 동시에 낮은 추구적 정향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점수의 신앙중요도 점수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종교적 내재성의 현재성과 수용성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r)가 유의미하고, 경계성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성 차이의 t -검증에서 불교는 모든 하위 척도에서 유의성이 가장 높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현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변량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내재성 척도는 종교정향 척도와 같이 신앙중요도 의식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부리스와 타플레이가 개발한 내재성 척도⁴⁷⁾는 한국의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의 내재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볼 수 있다. 또한 내재성 척도는 벅슨과 벤티스의 종교정향 척도⁴⁸⁾와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 척도들을 통하여, 한국의 주요 세 종교 간의 종교적 의식 차이 측면에서도 비교 연구로 고찰할 수 있었다.

47) Burris, C. T., & Tarpley, W. R., *op. cit.* 참조.

48) Batson, C. D., & Ventis, W. L., *op. cit.* 참조.

《참고문헌》

- 김동기, 「가톨릭 청년의 종교정향, 영성, 신앙 태도 그리고 생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 30, 한국종교학회, 2003.
- 김동기, 《종교심리학》, 학지사, 2003.
- 김선희, 〈윌리엄 제임스의 사상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 《미국학논집》, 32-1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00(여름).
- 김재영,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종교이론〉, 《종교와 문화》, 1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1995.
- _____, 〈윌리엄 제임스의 신비주의 이론〉, 《종교연구》, 14호, 한국종교학회, 1997.
- 메리 메도우 외 1인, 《종교심리학》(최준식 옮김), 민족사, 1993.
- 백승치·김동기, 〈종교정향에 따른 종교인의 유형연구 : 천주교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한국심리학회, 1994.
- 윌리엄 제임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김재영 옮김), 한길사, 2000.
- Allport, G. W., The religious context of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 1966.
- Allport, G. W., & Ross, J. M.,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 Batson, C. D., & Ventis, W. L.,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Batson, C. D., Schoenrade, P. A., & Ventis, W. L., *Religion and the individual: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1993.
- Berger, P. L., *The heretical imperative*. New York: Anchor, 1979.
- Burris, C. T., Curvilinearity and religious types: A second look at intrinsic, extrinsic, and quest re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4, 1994a.
- Burris, C. T., *Religious orientation: A field-theoretical analysis*. University of Kansas, 1994b.
- Burris, C. T., Batson, C. D., Altstaedten, M., & Stephens, K., "What a friend . . . ": Loneliness as a motivator of intrinsic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 1994.
- Burris, C. T., Jackson, L. M., Tarpley, W. R., & Smith, G. J., Religion as quest: The self-directed pursuit of mea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996.
- Burris, C. T., & Jackson, L. M., Social Identity and the true believer: Responses to marginalization the intrinsically religious, 1997.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Burris, C. T., June. Religious orientation and social identity: Towards a theoretical integ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1997.
- Burris, C. T., & Tarpley, W. R., Religion as being: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immanence scal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 1998.
- Christie, R., & Geis, F. L., *Studies in Machiavellianism*. New York: Academic, 1970.
- Deleuze, G., Immanence. Theory, Culture & Society. *SAGE, London, Thousand Oaks and New Delhi*, Vol. 14(2), 1997.
- Donahue, M. J.,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985.
- Fromm, E., *Psychoanalysis and relig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50.
- _____,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1976.
- James, W.,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New York: The Modern Libraray, 1902.
- Kirpatrick, L. A.,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Allport-Ross and Feagin measure of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 1989.
- Kirpatrick, L. A., & Hood, R. W., Jr.,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The boon or of contemporary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1990.
- Levenson, H.,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In H. M. Lefcourt(Ed.).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Vol. 1, pp. 15-63).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 Maslow, A. H., *Religions, values, and peak experiences*. Columbus, OH: Ohio State University, 1964.
- _____,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Y.; D. VanNostrand, 1968.
- _____,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1970.
- _____,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1971.
- Meadow, M. J. & Kahoe, R. D., *Psychology of religion: religion in individual lives*, New York: Harper & Row, 1984.
- Paloutzian, R. F., *Invitation to the psychology of religion*. Boston: Allyn and Bacon, 1996.
- Paulhus, D. L., Two-component definition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984.
- Peck. M. S., *Further along the road less traveled*. New York: Simon & Schuster, 1993.

Rambo, L. R., *Understanding religious conver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3.

Sagiv, L., & Swart, S. H., Value priorities and readiness for outgroup social conta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995.

원고접수: 10월 4일 1차심사: 11월 15일 게재승인일: 12월 3일

연구자 소개 : 김동기

- ① 전공: 심리학 / 소속: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사회심리학, 종교심리학
- ③ 주요논저: 《심리학개론》, 《종교심리학》, 《행복심리학》
- ④ E-mail: ghdgk@kangnam.ac.kr

연구자 소개: 고병철

-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한신대학교 강사
 - ② 관심영역: 한국종교, 종교교육, 종교이론
 - ③ 주요논저: <금강대도 교단의 정체성 확립 과정>, <한국 개신교사의 서술 태도에 대한 재성찰>,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교육론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 ④ E-mail: 03250@hanmail.net
-

A comparison study of religious immanence as a difference in the Protestant, the Buddhist and the Catholic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 Empirical Analysis on religious orientation and religious attitudes-

Kim, Dong-Gi • Ko, Byoung-Chul
(Kangnam Univ. • Hanshi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mmanence in the Protestant, the Buddhist and the Catholic believ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analyzing their religious orientations and religious attitudes. First, the results revealed that relationships(r) were significant among believing attitude, acceptance, present-orientation by the participants in 3 religions. But the relationship was not significant between believing attitude and boundary-leveling. Second, the results of t-test were significant between boundary-leveling and acceptance of religious immanence by the Protestant then other religions. Third, the result of ANOVA show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immanence scales(acceptance, present-orientation, boundary-leveling) and religious orientations(external, internal, quest) were significant to religious attitudes by participants in 3 religions. The Catholic were the most significant interactional effect; the Protestant were the second weaker significant level and the Buddhist were the third significant level. Acceptance scales were the most significant interactional effect; the present-orientation was the second weaker significant level and the boundary-leveling was the third significant level. Quest scales were the most significant interactional effect; the external scales was the second significant level and the internal scales was the third significant level.

Key words: religion, immanence scales, religious orientations scales, difference in Protestant, Buddhist and Catholic.